

광일·무등리그 각 16개팀 참여...9월 1일 플레이 볼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축제' 합평야구장 등 토너먼트...10월 27일 결승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잔치'가 펼쳐진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제9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9월 1일 합평 야구장에서 막을 올린다.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명품 대회'로 꼽히는 무등기는 무등리그와 광일리그로 나눠 챔피언을 가리게 된다.

대회에 참가한 무등리그 16개 팀과 광일리그 16개 팀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결을 갖고, 최후의 승자에 도전한다.

9번째 무등기 첫 무대는 대영토건과 정진산업 스카이가 장식한다. 두 팀은 9월 1일 오전 9시 합평 야구장에서 대회 첫 승을 놓고 격돌한다.

합평 야구장, 광주일고 야구장, 무등경기장에서 치러지는 대회의 마지막 무대는 10월 27일 펼쳐진다.

무등리그 최후의 두 팀이 오전 10시 우승컵을 놓고 무등경기장에서 만난다. 오후 1시에는 광일리그 결승전이 진행된다.

무등리그와 광일리그 우승팀에는 각각 트로피와 함께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각 리그 준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만원이 주어진다. 공동 3위 팀들은 상금 10만원을 받는다.

개인 타이틀 시상도 진행된다.

우승팀 감독과 최우수선수는 트로피와 부상으로 상금을 받게 된다. 우수선수과 최우수심판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야구'라는 공통분모로 뭉친 이들은 이번 가을에도 뜨거운 열정의 무대와 감동의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다.

자연환경, 포비스, 무등산생태요양병원, 카멋진남 등 단골팀부터 철우야구단, 청운에너지 등 데뷔전을 앞둔 '초보팀'까지 각양각색의 팀이 무등기를 빛내게 된다.

1년을 기다린 이들도 있다.

3년 연속 준우승에 머문 태평법률사무소가 무등리그 정상을 꿈꾸고 있고, 에프나인도 지난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광일리그 정상에 도전한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주관하며 전라남도체육회가 후원한다.

또 아름다움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와 KIA 타이거즈도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축제에 함께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 잔치'인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9월 1일 9번째 무대를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해 무등기 타오바리스타스와 태평법률사무소의 결승전 모습. <광주일보 DB>

광일리그

◇Bulldog Baseball Club(대표 노시형)
창단 3년 차의 패기 넘치는 팀. 야구를 통해 다른 팀들과 교류하고 야구 실력도 점검하기 위해 무등기에 출사표를 던졌다. 기대와 설렘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감독: 노시형 ▲코치: 신현호 ▲선수: 마경표 장진우 김수현 박근영 최완석 정태영 이다훈 이은천 이권하 이성호 김현호 정민준 이권호

◇PARTNERS(대표 김창근)
승리를 위해 모였다. 최선을 다해 승리를 거두는 게 이들이 즐기는 진정한 야구다. 최선을 다해 무등기 정상을 노린다.

▲감독: 김창근 ▲선수: 서재형 김대원 국범석 김갑오 김영복 김은민 김현성 박노을 박성호 박재현 박준용 방재원 심기환 이민욱 이영준 장영일 정은필 김태균 김용준 송승열 김광민

◇광주레인보우(대표 정광진)
2007년 조그마한 야구놀이에서 시작해 2008년부터 정식 유니폼을 입고 토요일에서 활동하고 있다. 야구를 즐기고 재미있게 뛰는 게 목표다.

▲감독: 정광진 ▲총무: 이권 ▲코치: 하광철 ▲주장: 지정근 ▲선수: 임재영 박찬찬 진보선 김경훈 김장준 안대규 김병중 민승기 구현 송민준 하희성 오상민 김희욱 이철진 김광철 강동구 황동현 김민재 김수용

◇뉴욕야시장(대표 김관현)
광주 서구 금호동 '뉴욕야시장'의 든든한 응원 속에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모든 팀원이 야구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즐거움이 가득한 팀이다.

▲감독: 박용주 ▲총무: 김관현 ▲선수: 권현준 기양서 김성훈 김영선 김명준 류진 박선용 박성후 최성진 서광섭 안대근 양혜성 양희권 양희문 오정민 윤가람 이도훈 이시운 이정룡 정삼백 조지훈

◇도깨비 야구단(대표 최훈국)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뭉쳐 신나는 그라운드를 만들고 있다. 승패에 연연하기 보다는 즐겁고 행복한 야구단을 위해 댄다.

▲감독: 최훈국 ▲총무: 안상우 ▲선수: 이태현 이태현 이대성 정명선 이현창 강민석 고현호 김상민 김재원 김현성 서광종 선명철 송승용 조경현 조원호 권희석

◇레드워리어스(대표 박재석)
그라운드의 전사들이 무등기 정상을 향한 도전을 시작한다.

▲감독: 박재석 ▲선수: 김동욱 김민영 박상선 박운상 서황진 이기민 이승환 서상석 신수권 김용연 김상욱 윤영웅 이정훈

◇무등산생태요양병원(대표 윤상현)
무등산생태요양병원 후원 아래 2010년 10월에 야구의 꿈을 시작했다. 야구가 좋아서, 야구를 해보고 싶어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팀이다.

광일 토너먼트 대진표

▲감독: 이범석 ▲경기기사: 윤상현 ▲코치: 채문기 류승용 ▲선수: 배남아 이동협 오은상 전용환 김진도 김종원 범성철 배석 박종선 양동화 조재현 김태민 이재신 김호 오승철 이국성 정우석

◇이벤저스(대표 신중호)
2016년에 창단해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가고 있다. 생활체육 연합회에서 즐겁게 야구를 하고 있다.

▲감독: 신중호 ▲선수: 김용천 정경기 김호현 김동현 박찬우 문성모 김기윤 김한이준휘 박준선 김지현 임홍범 손승오 신서현 장유준 김희식 김창주

◇에프나인(대표 장봉현)
지난해 무등기 우승 문턱에서 아쉬움을 삼켰다. 올 시즌에는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 올리겠다는 각오다. 정정당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예고한다.

▲감독: 장봉현 ▲코치: 탁홍석 ▲총무: 문용남 ▲선수: 조준영 박종현 오규중 진성수 조정훈 진용우 노요한 유지성 이종욱 김정근 이승운 임동일 김대철 기승주 경천 오정민 조영오 정기준 문병현 기민규

◇저스티스(대표 전현도)
익숙한 무등기 무대에서 또 다른 열정의 무대를 만들어 간다.

▲감독: 전현도 ▲총무: 이호열 ▲선수: 신지호 심민기 이경석 이성열 이화영 김상균 이기홍 권순관 김중민 김민혁 김정환 박종민 박진현 이상준 이성훈 정용상 오명진 김유신 이석우 정재철 이동협

◇제로스타(대표 나상학)
2009년 10월 창단돼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제로에서 스타까지'라는 뜻을 품고 야구 열정으로 땀땀 뭉친, 그라운드의 스타를 꿈꾸는 이들도 있다.

▲감독: 나상학 ▲선수: 전승운 장하명 김홍기 장하루 김성국 장민우 이우현 김형민 고남하 김석기 김현 최광우 최수진 김인후 이석주 조형은 한국기 김용 김화중 김동영 남윤직 남대운

◇청운에너지(대표 배준연)
지역 사회인 야구대회의 '가을 잔치'인

무등기 대회에 첫 발을 내디딘다. 무등기 데뷔전에서 돌풍을 준비하고 있다.

▲감독: 배준연 ▲선수: 신새별 이현승 이규영 박오차 박석연 박각수 이종현 배기홍 김기정 김영수 한승엽 문정희 박창섭 임자현 김재하 손찬용 이윤공 김이호 강경민 강권환 이상욱 양승현

◇철우 야구단(대표 한광근)
창단 3년 만에 무등기라는 큰 무대에 오르게 됐다. 선수출신 없이, 순수한 야구 열정으로 뭉친 보통 사람들이 즐겁게 그라운드에 오른다.

▲감독: 한광근 ▲선수: 오준환 이영태 서준원 박종근 박종표 윤성택 유정근 윤남근 최우재 김현철 김재필 노진현 김호성

◇카이로스(대표 김용수)
성품 바른 선수들이 '패어플레이'를 외치며 무등기에 도전한다. 끈끈한 팀워크는 기본이다. 공·수의 완벽한 조화로 승리를 위해 댄다.

▲감독: 김용수 ▲선수: 양영철 정준섭 오종민 홍강욱 김태호 김준석 김동원 최순홍 안병순 임현규 임진우 남준성 박인철 이동형 윤정승 유진우 이기남 김석철 이재학 임명규 임흥서 최정재

◇킹기이즈(대표 전상욱)
2017년 이들의 야구가 시작됐다. 30·40대 순수 아마추어들이 열정과 흥미로 뭉쳐 거침없는 플레이를 선보인다. 태백리그, 토너먼트 우승도 이룬 저력 있는 팀이다.

▲감독: 전상욱 ▲총무: 나상대 ▲코치: 임동일 ▲선수: 고관석 조나현 나상현 문동철 박주남 신경현 위경욱 이태민 이태훈 정다니엘 정재훈 최승이

◇화이트워리어스(대표 민태호)
'우리는 하나!'라는 로고 아래 끊임없이 도전을 하며 야구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이들에게 무등기는 새로운 팀과 조우할 수 있는 '기다리는 무대'다.

▲감독: 민태호 ▲선수: 김진혁 김승일 김병희 나재현 김갑수 이진환 김동현 서현철 서명석 나우리 노재기 김도환 조영태 김경준 장병찬 민성운

무등리그

◇END(대표 전범현)
탄탄한 팀워크,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로 무등기 그라운드의 주인공을 꿈꾼다.

▲감독: 전범현 ▲선수: 국준 양진 임명규 정준도 김년수 정준화 고세환 김강석 김중호 박종환 조양성 한지수 국민 김진수 이강은 김민수

◇MD 야구단(대표 김재훈)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팀을 이뤘다. 결과를 떠나 야구를 통해 한 주 스트레스를 날리면서, 즐겁게 그라운드를 댄다.

▲감독: 김재훈 ▲선수: 강원식 고대진 김기범 김명진 김상희 김수민 김지관 김창진 김한글 배연상 송일신 이영표 이현행 정영재 하재형 홍준희 이민주

◇광주 버스터즈(대표 박동훈)
2007년 창단해 10년 넘게 야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이어오고 있다. 무등기는 이들에게 늘 설레는 도전의 무대다.

▲감독: 박동훈 ▲선수: 이철진 김영근 김현호 최성일 정대훈 변기민 정가별 문도선 황인규 박 준 서영준 배광석 박승용 노호석 고성주 최재원 최준영 김성근 박준규

◇금호 허리케인(대표 김기철)
팀워크와 야구 열정으로 허리케인 같은 강렬한 플레이를 예고한다.

▲감독: 김기철 ▲선수: 고상석 이충현 최용석 이정현 정대호 고남석 명준연 노진석 정성종 김기철 김연식 이종진 이유현 송만식 강신우 선석진 최철원 이광근 윤양선

◇대영토건(대표 박원호)
야구에 대한 애정과 열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노력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결실의 가을을 그리며 무등기를 기다린다.

▲감독: 박원호 ▲총무: 정만기 ▲선수: 김승삼 ▲선수: 강상주 강종구 김관관 나명식 노대로 손세현 안도운 이기우 오승용 오정운 위동철 윤지은 이진우 임광진 임진성 전승남 전우상 정효택 최 용 이강수

◇BLACK(대표 송승용)
지난해 무등기에 참가하면서 야구를 더 많이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다. 지난해보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또 다른 무등기 도전을 펼친다.

▲감독: 송승용 ▲총무: 정만기 ▲선수: 구정진 구영석 권효석 김창진 김태성 목진우 박성수 송명근 윤경성 이상훈 이재광 이종범 이창훈 임병근 임현주 정용식 채호진 허준

◇샌더스(대표 오성하)
2010년 GN리버스로 출발해 2019년 현더스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했다. 전통과 저력으로 가을잔치 주인공에 도전한다.

▲감독: 오성하 ▲선수: 임형택 문천식 이광진 신상준 홍은성 한상우 박건후 안중훈

무등 토너먼트 대진표

김태균 재대영 서소광 김선룡 윤성용 유광열 유현상 이윤근 이주진 최병은 최준 노건영

◇원포인트이엔지(대표 이동민)
2017년 회사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한 팀을 꾸렸다. 스포츠맨십을 중요시 하는 매너 있는 팀. 정정당당한 플레이로 실력 발휘에 나선다.

▲감독: 이동민 ▲총무: 김기갑 ▲선수: 박상하 김지성 윤평상 박대열 유상국 이윤범 황성하 강선중 김민욱 김태호 엄기선 최동민 김준하

◇임동빛데리할인매장(대표 이광식)
야구 열정 하나 만큼은 국가대표! 한 경기 한 경기 웃음을 잃지 않는 야구, 즐거운 야구! 외면과 내면이 아름다운 그라운드의 신사들이다.

▲감독: 이광식 ▲코치: 안재형 나보현 ▲경기기사: 강산 ▲총무: 김성주 ▲선수: 송원진 이민욱 박제영 김훈의 문형건 서영균 전세현 정혁수 국경 장태호 이수훈 이현우 안우주 박승진 김민규 김석훈

◇자연환경(대표 백규식)
자연환경 유휴지사라는 이름으로 뿔뿔뿔 팀워크와 실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많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었다. 무등기 우승컵도 보유하고 있다.

▲감독: 백규식 ▲감독: 정상현 ▲코치: 나하준 양근우 ▲선수: 김대원 김동후 김만철 김용신 남준성 노윤호 류영광 박남필 박래준 박철준 서준호 신경수 신해수 정승연 조영준 최용희 최정재 최현만 황수현

◇전대 OB(대표 김장렬)
실력은 OB들의 열정의 그라운드가 펼쳐진다.

▲감독: 김장렬 ▲선수: 김창훈 김경주 김지훈 박병수 박수환 박용석 변영선 윤요한 이욱 이경욱 임대근 장겸순 장순중 최정훈 김태훈

◇정진 산업 스카이(대표 조승현)
스카이 야구단으로 2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오랜 역사 속에 야구 실력도 탄탄하다. 무등기의 단골 손님이자 실력파들의

또 다른 가을잔치가 기다린다.

▲감독: 조승현 ▲감독: 유해동 ▲수석코치: 강기철 ▲총무: 원태현 ▲주장: 정재운 ▲선수: 김병석 박광영 오영의 최홍준 김준석 심정진 최재준 김세균 김기석 이근식 강성민 이권 이기범 김동준 박정섭 손로몬 김명주 박현철

◇카멋진남(대표 김희동)
2015년 창단해 광주 그라운드에서 활동하고 있다. 무등기와 인연이 많다. 무등기 정상에도 오른 실력 있는 팀의 즐거운 야구가 펼쳐진다.

▲감독: 신주열 ▲총무: 김희동 ▲선수: 공명규 국범석 국준 김강민 김기석 김년수 김대원 김상수 김용선 노규호 박상신 서준호 윤명환 이민욱 정정환 정호영 정효종 조영오 주규우 주민호 최수민 최정상

◇태평법률사무소(대표 김민수)
우승에 목이 마르다. 3년 연속 준우승에 머무른 아쉬움을 뒤로하고 2019년 무등기 우승팀을 꿈꾸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감독: 양준태 ▲총무: 김민수 ▲단장: 방민택 ▲선수: 송승렬 박경민 김봉민 정승환 서정걸 고현우 최용 이재우 최재용 조경영 조장훈 박용태 김민혁 박재철

◇포비스 야구단(대표 주민수)
익숙한 무등기에서 잘 아는 상대들과 한 치 양보 없는 대결을 기다리고 있다.

▲감독: 손영생 ▲선수: 주민수 강백산 박민호 류호현 양하성 이재청 손재근 오승영 이강구 강도현 김영관 김현호 최정재 이기주 오화석 김현준 송찬영 김희주 윤성근 최남중 김현중 류호주

◇피닉스는 못말려(대표 김진성)
2017년 창단해 세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친구들이 모여 만든 젊은 팀이다. 형님들을 상대로 무등기 추억을 만든다.

▲감독: 김진성 ▲선수: 강민재 김동규 류명환 문경민 박대건 염기백 이수진 임종민 임중관 정지현 조현상 최형욱 한성민 황규성 조효정 안준열 도재운 김지호 이지현 오종민